

증권사, 연기금투자상품 운용 참여 공공기관 기금도 투자위탁 허용

연기금투자상품 제도 개편 방안

작년 61개 기금, 54개 공공기관서
예탁 평균잔액 62조1000억원
경영평가 통해 위탁 활성화 방침

앞으로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연기금투자상품의 중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기금투자상품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상품은 각종 기금과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자금 위탁운용(OCIO) 모델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기준 평균 잔액은 62조 1000억원이며 위탁기관은 115개다.

이번 개편의 핵심 목표는 공공부문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투자상품 위탁 확대 ▲운용체계 효율화 ▲운용 전략 다변화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여유자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영평가 등을 통해 연기금투자상품 위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투자상품 위탁이 가능한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의 보유자금도 연기금투자상품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자산운용사만 중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치면 중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

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 방안을 마련한 후,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사를 중간운용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중간운용사의 성과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성과 평가 점수가 67점 이상이면 지위가 유지됐으나, 앞으로는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낮은 투자상품 보수율로 인해 성과가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방식도 기존의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 기준으로 변경한다.

기금 관리 주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수익 중장기 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금 평가 시 자산 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대체 투자 상품에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 대체 투자 상품의 경우 대체투자자문단 검토 절차를 생략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투자상품운영위원회 의결 및 '연기금투자상품 운영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특별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정답 없어 주주보호, 실천 단계로 나아가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세미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정합성 문제 등 부작용 고려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보호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2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 세미나에서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우리 법체계와 실정에 맞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금융법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는 김학석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등이 참석했다.

그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와 경영 현장에서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충실의무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주주 보호에 취약점이 있다는 반론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짚었다. 우리

법원이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선 회사와 주주를 분리하고, 상법 제401조와 관련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관련해선 회사의 손해에 수반하는 주주의 피해는 간접손해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선 “상장회사의 합병, 물적분할 등 조직재편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조항들을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느 한쪽의 의견만이 정당일 수 없으며,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보호를 위한 감독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끝으로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 단계에 머물러선 안되며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SCI 글로벌지수에 현대차 인도법인 편입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인도 기업 아다니 그린에너지 빠져
총 23개 종목 추가 107개 종목 제외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가지수로 꼽히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글로벌 지수 구성 종목에 현대차 인도법인이 새로 편입됐다.

1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인 MSCI는 2월 정기 리뷰에서 글로벌 표준 지수에 현대차 인도법인을 추가하고 인도 기업

아다니 그린에너지를 제외했다. 전체적으로는 23개 종목을 추가하고 107개 종목을 제외했다.

이번 조정은 오는 28일 시장 마감 후부터 적용되며 실제 지수의 변경 유효 시작일은 3월 3일이다.

이번 조정에서 글로벌 지수에 중국 종목은 8개가 추가되고 20개가 빠졌다.

MSCI는 지난해 11월 지수 조정에서는 인도 기업 5곳을 글로벌 지수에

추가해 신흥국 시장 지수의 인도 비중을 20% 가까이 높인 바 있다.

한편 이번 개편에서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선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11개사가 제외됐다. 새로 편입된 종목은 없었다.

MSCI 지수는 주요 글로벌 투자의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MSCI는 분기에 한 번 이뤄지는 정기 리뷰를 통해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조정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韓 지수서 LG화학 등 11개사 편입

MSCI지수에 신규 편입종목 없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서 LG화학,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11개사가 제외됐다. 새로 편입된 종목은 없었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 MSCI 2월 정기 리뷰에서 한국 지수 구성 종목을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편입 종목은 ▲엔켐 ▲GS ▲한미약품 ▲금호석유 ▲엘앤에프 ▲LG화학 ▲롯데케미칼 ▲넷마블 ▲포스코DX ▲삼성E&A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다.

새로 편입된 종목은 없어 MSCI 한국 지수 편입 종목은 92개에서 81개로 줄어 들었다. MSCI는 분기에 한번 이

뤄지는 정기 리뷰를 통해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조정한다. 지수 변경은 2월 28일이고, 실제 지수의 변경 유효 시작일은 3월 3일이다.

MSCI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가지수로 주요 글로벌 투자의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지수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지수 추종)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편입되면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한시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자금 유출의 영향은 거래 대금 대비 유출 금액이 큰 LG화학(21.7배), 넷마블(14.3배), GS(13.5배)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우주경제’ 펀드명 ‘우주기술&방산’로 변경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글로벌우주경제 펀드’를 ‘한국투자글로벌우주기술&방산’으로 바꿨다고 12일 밝혔다.

‘우주기술’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 내에서도 기술력 있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해당 펀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품명 변경했다.

해당 펀드는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환매주기도 절반 가까이 단축했다. 기존에 17시 이전 환매신청 시 4영업일 기준 9영업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서원주 국민연금 CIO 1년 연임 확정

최근 10년간 두번째 연임 CIO
작년 수익률 13.6%, 전년 손실 회복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사진)이 1년 연임한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서 CIO의 1년 연임을 결정했다. 임기는 올해 12월 26일까지다. 국민연금 CIO 임기는 2년이며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CIO를 거친 4명 가운데 연임에 성공한 건 안효준 전 CIO 다음으로 두 번째다.

서 CIO는 지난해 12월 26일 임기가 종료됐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 달 넘게 연임 승인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 CIO 임기는 2년이며 성과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사진)이 1년 연임한다.

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연임은 국민연금법이 아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치지 않는다.

서 CIO는 부임 첫해 운용 수익률이 역대 가장 낮은 수치인 마이너스 8.28%를 기록했지만 다음해 13.6%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며, 2022년 평균 손실 약 80조원을 모두 회복했다. 올해 운용수익률도 해외 주식에 힘입어 1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까지의 국민연금 수익률은 12.57%다. /허정윤 기자 zelkova@